

한국의 대표 문고본을 꿈꾸는 <살림지식총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는다

오는 8월로 300번째 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는 문고본 <살림지식총서>의 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별 도서 대출 순위 상위 5위 안에 고정적으로 들만큼 이 시리즈는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3년 6월 <미국의 좌파와 우파> <미국의 정체성> 등 미국을 주제로 한 10권의 책을 출간하며 출발한 이 시리즈는 다른 출판사의 문고본에 비해 그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인지도를 확장해 가고 있다.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살림지식총서>에서 최근 의학시리즈 8권이 선보였다. 현직 의대 교수, 한의사, 역사학자 등이 필자로 참여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다루었다. 때마침 드라마나 소설 등을 통해 ‘의학 붐’이 일고 있는 터라 독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로 양질의 지식 제공

<살림지식총서>의 첫 번째 강점은 96페이지라는 정해진 분량과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판형, 그리고 3,3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이다. 소수의 지식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로 양질의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살림출판

사의 임중
혁 인문
팀 장 은

거기에 “성실성”을 덧붙인다.

“한국의 어느 문고보다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출판사들이 보통 문고본을 내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꾸준한 속도로 책들을 출간했고, 그런 점에서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순수하게 인문학적 주제에 많이 치중했지만 작년부터는 그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실용화된 지식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문학의 실용화를 추구하는 출판계의 전반적인 변화도 한몫했다고 임 팀장은 설명한다.

<살림지식총서>가 시대의 트렌드나 독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도 ‘자유로움’ 때문이다. 책임 편집자는 한 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디자인 작업에는 모든 디자이너가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기획에 있어서도 출판사의 모든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더욱이 <살림지식총서>는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소특집’으로 8~10권의 책을 묶어서 출간하는데 이런 기동력은 바쁜 현대인들이 이 책을 찾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에 맞춰 ‘중국 특집’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그리스 올림픽 특집’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특집’을 출간했다.

물론 이런 기동력은 이 시리즈에 대한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시리즈의 첫 책은 2003년 6월에 나왔지만 처음 기획은 2001년 겨울이었다. 수개월 동안 수백 개의 주제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고, ‘국내 필자에 의한, 대중을 위한 교양 총서’라는 방향이 정해졌다.

<살림지식총서>의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편집자 정희엽 씨는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들의 현재 관심사에 집중





한국의 대표적 문고를 만들고 싶다는 편집자 정희엽 씨(좌)와 기획자 강동준(우) 씨

했다. 기획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자들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고 말한다.

필진 찾기의 어려움은 <살림지식총서>가 오로지 국내 필진에 의해서만 꾸려진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시리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문고를 지향했고, 그러자면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우리의 지식을 다루어야만 했다. 프랑스의 '꼬세즈 문고',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 처럼 전통을 쌓아가는 한국의 대표적 문고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시리즈의 취지였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정희엽 씨는 처음에는 널리 알려진 원로급 학자를 대상으로 원고 청탁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문고본에 대한 원로 학자들의 편견이 강했습니다. 짧은 글이라 연구 성과에도 들지 못하고, 뭔가 '체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원고를 청탁해 나중에는 전화를 받으면 어떤 주제로 청탁 드린 것인지 빨리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웃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취지에 동의해 주는 실력 있는 소장학자들의 원고를 받을 수 있어 총서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의 말처럼 <살림지식총서>가 지닌 의의 중 한 가지가 실력과 소장학자들의 출판계 진출이다. 박이문의 <문학과 철학 이야기>, 신용하의 <신용하의 독도이야기>처럼 원로학자의 책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박영수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나 김형인의 <미국의 정체성>처럼 젊은 학자들의 책도 독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책과 필자에 따른 '수준 차이', 지식총서가 넘어야 할 한계

보통 기획에서 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권당 6개월. 짧은 페이지의

책임을 감안한다 해도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특히 책과 필자에 따라 '수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시리즈 초창기부터 계속되어 왔고, 편집자와 기획자로서도 그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털어놓는다. 마케팅 기획팀의 강동준 씨는 말한다.

"저희가 워낙에 다종다기한 주제를 다루다보니 필자가 마땅치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글 실력을 모두 갖춘 분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분야도 있거든요. 또 문고본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상 분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310매 내에서 완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다 읽고 나면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응이 좋은 책은 단행본화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살림지식총서>는 오는 8월에 30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300권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경제력을 도약시킨 지도자들의 리더십. 우리나라, 영국, 독일,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지도자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맞물린 특집이다.

문고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가지는 한계와 시리즈가 요구하는 끈기, 자본력 때문에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출판과 지식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살림지식총서>의 도전과 모험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1,000권, 2,000권에서 끝나지 않을 한국의 대표 문고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살림지식총서>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 그 변화와 노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리라. **★**